

[공동체 규례] (1QS) 3.13-4.26에 나타난 이원론과 그 기원

배철현*

目 次

- I. 들어가는 글
- II. 콤란공동체의 이원론
- III. 1QS 3.13-4.26의 신학적 특징들과 이원론
- IV. 마즈다이즘의 영향
- V.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공동체 규례] 혹은 1QS는¹⁾ 1947년에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일곱 개 파피루스 문헌 중에 하나이다. 학자들은 일곱 개 파피루스 문헌들 중 [회중의례](Rule of the Congregation: 1QSa)과 [축복서](Book of Blessings: 1Qsb)은 [공동체 규례]에 첨부되었던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 문헌들을 1QS,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1) 1QS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1) 서문: 1QS 1.1-1.5; (2) 계약공동체 들어가기: 1QS 1.16-2.18; (3) 재가입의식, 용서: 1QS 2.29-3.12; (4) 콤란의 근본적인 이원론: 1QS 3.13-4.26; (5) 공동체 생활의 규례: 1QS 5.1-6.23; (6) 형벌에 관한 법칙: 1QS 6.24-7.25; (7) 거룩한 회중에 관한 법칙: 1QS 8.1-10.8; (8) 찬양시: 1QS 10.9-11.22.

1QSa, 1Qsb로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 문헌들은 같은 동굴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헌들의 측정연대나 글자체가 동일하다. 그 후에 이 문헌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출판되었다.²⁾ 그 후 비평본은 1994년 H. 찰스워쓰에 의해,³⁾ 그리고 다른 여러 번역본도 등장하였다.

1QS는 쿨란 공동체가 구성되기 시작한 기원전 2세기경에 구전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 기원전 100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1QS는 그 후에서 제4동굴과 제5동굴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조각난 파피루스에 발견되어 1QS의 내용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⁵⁾ 이 두루마리 중 가장 파손된 부분은 문헌의 마지막 부분이다. 제1동굴에서 발견된 [전쟁 두루마리]나 [하박락 주해]도 마지막 부분이 탄 흔적이 있어, 학자들은 파피루스를 게니자에 저장하기 전에 상징적으로나 의례적으로 불태운 흔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1QS가 11행간으로 되어 있지만 범스(Vermes)는 [공동체 규례]는 1QS 5.1에서 시작한다고 해석한다. 4Qsd만 1QS의 모든 부분들이 있는 파편문서이다. 1QS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문헌들은 1-4행간, 혹은 5-11행간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QS가 원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헌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되기 한다.

1QS는 쿨란공동체의 메시아 도래를 기다리며 현재의 종말론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유대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 규례, 그리고 신학

2) Burrows, Trever, and Brownlee "Manual of Discipline" in *The Dead Sea Scrolls of St. Mark's Monastery*, vol. II. Fasc. 2: Plates and Transcription of the Manual of Discipline (New Have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51).

3) James H. Charlesworth, ed., *The Dead Sea Scrolls: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vol. 1 Rule of the Community and Related Docu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4) 1QS의 내용을 담은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는 기원전 100년경 기록된 제4동굴에서 발견된 파편문헌들이다. 학자들은 기원전 150년경 공동체가 쿨란 사막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1QS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5) [공동체 규례]와 관련된 12개의 복사본이 발견되었다. 동굴 1에서 발견된 1QS가 Sereq ha-Yahad의 전문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온전한 복사본이다. 동굴 V에 1QS와 관련된 파편문헌(5Q11)이 있다. 대부분의 복사본은 동굴 IV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1QS과 관련된 10개의 파편문헌들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harlesworth 53-107을 보라.

을 기술한다. IQSa는 콤란공동체는 종말론적 마지막시간(Endzeit)를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서술하고 IQSb는 어둠의 자녀들이 물려난 종말론적인 시간에 마련된 축복을 묘사한다. 이 글에서는 IQS 중 이원론이 가장 잘 드러난 IQS 3.13-4.26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기원을 구약성서와 오리엔트 문화, 특히 마즈다야스니즘에서⁶⁾ 찾으려는 시도이다.

II. 콤란공동체의 이원론

IQS 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원론이다. 이원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원론은 창조신화에 가장 잘 드러나는 개념으로 선한 질서신이 악한 혼돈의 신(들)과 우주적인 투쟁을 벌인다.⁷⁾ 모든 사물이 하나에 기원한다는 일원론(monism)과는 달리 유일신론이나 다신론에서 세상은 여러 신들과 그 신들의 상징하는 원칙들이 경합을 벌인다. 그러나 이들 간의 차이는 선명하지 않다.

이원론은 유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⁸⁾ 이원론은 무

6) 필자는 조로아스터교 대신 마즈다야스니즘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조로아스터교'란 용어는 '마호메트교'처럼 오리엔탈리즘적인 용어이다. 조로아스터는 아후라마즈다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전달한 대언자이기 때문에, 마즈다야스니즘이란 용어를 선호하고자 한다.

7) 우주창조신화의 기본 구조는 질서와 혼돈의 신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을 상징하는 태초의 물인 '누'(NW)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태초의 언덕인 '벤벤'(Benben),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엘리쉬]에서는 바닷물을 상징하는 '티아맛'을 아누신이 선사한 바람으로 제압한 질서의 신인 '마르둑'(Marduk)의 대결,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tohu wa-bohu), '어둠'(hosek), 그리고 '티아맛'과 동일 한 어원에서 유래한 '깊음'(rehom), 그리고 '물'(mayim)이 하나님의 영, 혹은 강한 바람에 의해 제압당하고, '빛이 있으라'([창세기] 1장 3절)라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구조는 전통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선한 신이며 질서 신이 승리하는 숨겨진 혹은 약화된 이원론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 교리인 *Creation ex Nibilo*의 교리에 대리에 대한 재해석은 필자의 "Creatio ex Nihilō?"(종교학연구 21 (2002): 29-48)을 보라.

8)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복음서]에 등장한 이원론에 관한 글은 필자의 "[도마복음

엇보다도 절대적인 이원론과 상대적인 이원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극단적이며 절대적인 이원론 안에서 두개의 상반된 원칙들이 태고적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고대 이란의 이원론인 마즈다이즘이나 마니교가 그것이다. 이 두 종교 안에 빛과 도움을 주는 원칙(Amesha Spenta)과 어둠과 파괴적인 원칙(Angra Mainyu)이 태고적부터 투쟁해왔다. 이보다는 완화된 상대적인 이원론에서는 이 두 원칙들의 하나는 다른 하나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어 중세 그리스도교 이단이었던 보고밀(Bogomils)에서 악마는 신으로부터 온 타락한 천사이다. 악마는 인간의 몸을 창조하였고 신을 속여 인간에서 영혼을 갖들게 하였다.

절대적-상대적인 구분보다 더 중요한 분류는 변증법적 이원론과 종말론적 이원론이다. 변증법적 이원론은 두개의 상반된 개념이 영원히 변증법적이거나 긴장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와 물질(혹은 플라톤의 '저장소'(receptacle)), 단수와 복수, 인도 종교에 등장하는 현상계인 마야(maya)와 궁극적 실체인 아트만-브라흐만(atman-brahman)같은 분류이다. 변증법적 이원론은 대체적으로 순환적이며 영원히 반복하는 역사관을 가진다. 종말론적 이원론은 인간과 세상의 궁극적인 운명과 연관 있다. 순환적인 변증법적 이원론과는 달리 종말론적 이원론은 선형적이다. 선형의 마지막에 얽은 제 거되고 종말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다. 고대 이란 종교들, 마즈다이즘과 마니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바로 종말론적 이원론에 속한다.

찰스워쓰는 이원론을 두 개의 서로 배타적인 범주를 가진 정·반 사상의 유형이며 각각의 범주는 다른 범주와는 대조가 되는 특징들, 특히 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⁹⁾ 그리고 바로 이 이원론적인 사상은 콤파문헌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이원론은 콤파문헌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서]에 나타난 영지주의: '몸'을 통해 본 이원론을 중심으로”(인문논총 54(2005), p. 158-189)를 보라.

9) J.H. Charlesworth 1990과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alism in 1QS 3:12-4:25 and the Dualism Contained in the Gospel of John,” in J.H. Charlesworth ed. *John and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Crossroad, 1990).

[전쟁 두루마리](1QM)에 등장하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투쟁은 구약성서와 외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¹⁰⁾ 프레이와 찰스 워쓰는 10가지 이원적인 사고·유형으로 구분한다.¹¹⁾

학자들은 1QS와 다른 콤란 문헌들을 비교하여 이원론의 역사적인 발전단계에 대해 연구해 왔다. 특히 [전쟁 두루마리] 1QM1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벨리알(Belial)의¹²⁾ 종말론적 전투는 콤란 문헌중 이원론

- 10) [다니엘서] 10:20-21에 등장하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페르시아와 그리스 왕들과 전쟁하는 이야기와 외경 중 [12 족장들의 증언]과 [히년서]에 이원론적인 요소가 감지된다.
- 11) J. Frey, "Different Patterns of Dualistic Thought in the Qumran Library: Reflections on their Background and History," in *Legal Texts and Legend Issues, Studies on the Texts of the Desert of Judah 23* (Leiden: E.J. Brill, 1997): 282-5: 1) 형이상학적 이원론: 찰스워쓰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만을 묘사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소개한다. 프레이는 형이상학적인 대등한 구조가 마즈다이즘의 아후라 마즈다와 앙그라 아호리만의 대등한 적대구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과 사탄/벨리알의 갈등은 형이상학적 이원론 구조에 속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사탄이나 벨리알이 이 전통들 안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우주적인 이원론: 세상은 두개의 상반된 개념 빛-선 그리고 어둠-악으로 나뉜다. 우주적인 이원론은 형이상학적 이원론과는 다른 점이 있다. 우주적인 이원론은 영원히 지속적이거나 혹은 결과론적이지 않다. 우주적인 이원론은 빛과 어둠과 같이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고, 미카엘, 벨리알, 빛의 왕자와 같은 존재로 표현되기도 한다; 3) 공간적 이원론: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구분한다; 4) 종말론적 이원론 혹은 시간적 이원론: 시간을 이 세상의 시간과 다가 올 세상의 시간으로 구분한다; 5) 윤리적 이원론: 인간을 두개의 상반된 윤리 가치로 구분하여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6) 구원론적 이원론: 메시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한다. 이것은 윤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나가 문제이다; 7) 신학적 이원론: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한다; 8) 물질적 이원론: 세상을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한다; 9) 인간적 이원론: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육체와 영혼의 이중 구분을 기초로 한다; 10) 심리적 이원론: 인간 심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경향에 관한 설명이다.
- 12) '벨리알'은 구약성서 [열왕기상] 21:10에서 '건달; 가치 없는 자' 혹은 '혼돈' 등으로 번역되나,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 6:15-6에는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악마'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뭉치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

적인 생각을 가장 독창적으로 드러낸다. 이 전투는 이전의 성서 전통들, 특히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적 전쟁을 포함하는 이원론과 마카베오 전쟁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1QS의 이원론을 P. von der Osten-Sacken(Osten-Sacken)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¹³⁾

- (1) 1QS 3:13-4:14: 1QM의 종말론적 전쟁 이원론을 윤리적 이원론으로 변형;
- (2) 1QS 4:15-23a: 윤리적 이원론이 종말론적 이원론으로 평창;
- (3) 1QS 4:23b-26: 윤리적 이원론이 인간적인 이원론으로 평창.

I. 뒤엠(Duhaime)은 오스텐-사켄과 의견을 달리한다. 그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윤리적 이원론이 가장 독창적이며 원초적인 이원론이라고 주장한다.¹⁴⁾ 그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윤리적 이원론을 다루는 1QS 3:13-18a; 25b-26a; 4:15-23a이며 두 영들의 우주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1QS 3:18b-23a; 3:23b-25a)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J. 프레이는 오스텐-사켄이나 뒤엠의 이원론에 대한 선형적인 설명을 거부한다. 그는 윤리적으로 경도된 우주적인 이원론(1QS 3:13-4:26)과 두개의 서로 다른 상반된 천사들이 대결하는 엄격한 이원론(1QM)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특히 일반인들의 이원론이었고, 후자는 사제들의 이원론으로 구분한다.

1QS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1QS 6.13-23과 1QS 3.13-4.26이다. 1QS 6.13-23은 쿨란공동체에 입회하기 위한 2년간의 수련기간 중 암송해야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1QS 3.13-4.26은 쿨란공동체의 신학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마치 그리스도교의 사도신경이나

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이 단어는 원래는 보통명사였으나, 후에는 고유명사로 그리스도와 대결하는 악의 현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넘어가는 개념 변화 과정을 사해사본의 벨리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P. von der Osten-Sacken, *Gott und Belial* (Goettingen: Vandenhoeck & Reprecht, 1969).

14) J. Duhaime "Instruction sur les deux esprits et les intepolations dualists <Qumran>," *RB* 84 (1977), pp. 566-96.

주기도문처럼, 모든 콤란공동체 멤버들이 암송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III. 1QS 3.13-4.26의 신학적 특징들과 이원론

1QS는 콤란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작품 중에 하나이다. 이 공동체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들을 2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한다. 1QS는 두 가지 신학적 특징을 드러낸다: 1) 엄격한 유일신 사상; 2) 종말론적 이원론.¹⁵⁾ 이러한 신학적 내용을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었다. 선생이 콤란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QS 3.13-14

(13) 선생의 역할은 모든 빛의 자녀들을 모든 인간들의(직역, ‘사람들 자녀들의’) 본성에 관해 이해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14) 즉, 그들의 세대안의 활동에 맞게 자신들의 표징을 지닌 모든 종류의 영혼들과 그들의 평화의 시대에 함께 오는 고난의 도래에 관한 것이다.

콤란 공동체 선생 ‘마스킬’의 역할은 ‘빛의 자녀들’에게 인간들의 본성에 관해 교육하는 것이라고 증언한다. 그 본성의 내용은 모든 종류의 영혼들과 종말에 경험하게 될 고난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증언한다:

1QS 3.15

(15)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과 미래에도 일어날 모든 것이 유래한다.

위 증언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지식’의 소유라고 증언한다. 그러면 이 ‘지식’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15) J. Charlesworth,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alism in 1QS 3:13-4:26 and the ‘Dualism’ contained in the Gospel of John,” in *John and the Dead Sea Scrolls* (COR: New York, 1990), pp. 76-106.

요소인가? 여기서의 지식은 후대 영주주의에서도 등장하는 우주가 운행하는 삼라만상의 원칙을 아는 것이다. 이 지식은 내용은 우주가 두 개의 상호-독립적이며 정반대의 원칙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종말론적 이원론

쿰란공동체 거주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함한 우주가 두 명의 강력한 천사들, 즉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와의 팽팽한 전투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들은 어둠의 몫(*gurl*)과 빛의 몫(*gurl*)을 모두 지니고 있어,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어둠의 천사에 의해 악에 빠질 수가 있다. IQS3.21b-24a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21b) 어둠의 천사로 인해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그들의 죄, 불법,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림으로 야기된 것이다.

(23) 이것은 그의(어둠의 천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따라 이루어진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간은 그의 적대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24) 그의 몫의 모든 영혼들은 빛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다.

IQS의 두 영에 관한 내용은 쿰란 문헌중 이원론에 관한 가장 자세한 설명 중에 하나이다. 이 이원론은 우주적인 이원론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이원론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하나님께서는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이 빛과 어둠 위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

IQS 3.24

(24) 그는 빛의 영혼과 어둠의 영혼을 찬양하였고 그들 위에 모든 피조물의 기초를 만드셨다.

1QS 3.13-4.26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창조의 노래로 시작한다. 1QS 3.15b-18은 창조물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것을 선포한다:

(15b)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하나님) 그들의 모든 계획을 확립하였다.

(16)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존재하게 될 때, 그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의 손 안에

(17) 모든 사물에 대한 판결이 있다. 그는 그들의 활동 가운데 그들을 지탱할 것이다. 그는 인간을 세상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

(18) 그는 인간을 위해 그가 방문할 정해진 시간 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할 두 가지 영을 계획하였다.

2. ‘빛의 왕자’와 ‘어둠의 천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에게 두 가지 영을 준비하셨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영들은 1QS 3.18-9에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라고 기록한다. 빛의 길을 걷는 자는 ‘빛의 왕자’와 연관이 있고 어둠의 길을 걷는 자는 ‘어둠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다. 각각의 분류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각각 ‘빛의 자녀들’(1QS 3.13, 24, 25)과 ‘기만의 자녀들’(3.21)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이들 간의 구분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빛의 자녀’들의 ‘어둠의 천사’의 유혹을 받아 ‘기만의 길’을 종말 전까지 걷기도 한다고 증언한다(1QS 3.22-23):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그들의 죄, 불법,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림으로 야기된 것이다.

(23) 이것은 그의(어둠의 천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간은 그의 적대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빛의 자녀’들의 탈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천사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이 두 영을 모두 창조하였다고 전한다.

1QS 4:2-8은 진리의 아들들이 지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 그리고 이것들이(빛의 자녀들)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길들이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앞에 진실한 의로움의 모든 길들을 닦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게 하고

(3) 겸손, 인내의 영혼과 관대한 동정과 지속적인 선행, 현명함, 통찰력, 놀라운 지혜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확립되게 한다.

(4) 이것들은 그의 위대한 헤세드에 의존한다. 지식의 영이 그가 의도한 모든 일에 임하고, 의로운 판단에 열심을 내고, 변치 않는 목표를 향해 거룩한 의도가 있게 하신다.

(5) 그리고 진리의 자녀들에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다. 영광스런 순결로 더러운 우상을 혐오하고,

(6) 지식의 신비에 대한 진실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한 분별 안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가는 치료와

(7) 장수 안에서 위대한 안녕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많은 자녀가 생기며 영생으로 한없이 즐겁고, 영광의 관이

(8) 영원한 빛으로 감싼 눈부신 의상과 함께 빛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짓의 영혼’은 사람에게 들어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다(1QS 4.9-14):

(9) 그러나, 거짓의 영혼에 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탐욕과 되로운 일에 태만, 사악함, 거짓, 자만심, 거만함, 잔악한 눈속임과 거짓,

(10) 터무니가 없는 위선, 화냄, 치사한 비열함, 음란의 영혼으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는 몰두, 깨닫지 못한 의례의 더러운 방식들,

(11) 신성모독의 혀, 장님 됨과 귀먹어리 됨,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음, 그리하여 어둠의 길과 사악한 간교 안에서 걷는다. 그 안에 걷는 모

든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가는

(12) 형벌의 천사에 의한 괴로움, 하나님의 복수의 화로 영원한 파멸, 끊임없는 공포와

(13) 수치, 그리고 어두운 장소의 불 가운데서 소멸하는 망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대 안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파괴될 때 까지 어두운 심연에서 무서운 고통과 모진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14) 그들을 위한 남은 자나 구원이 없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으로 이 두 영을 지정하신 점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영, 자기의 몫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된다:

1QS 4.15-16

(15) 이들 안의 (두 영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며, 이들의 두 구분 안에 사람들의 세대의 모든 무리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방식 안에서 사람들은 걷고, 모든 그들의 일들은

(16) 사람의 몫에 따라 다소로 불문하고 모든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들의 구분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을 선별했기 때문이다.

1QS는 이 두 영들 간의 투쟁을 언급한다. 이러한 투쟁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그리고 ‘기만의 영’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지속된다.

1QS 4.17-26

(17) 그들의 구분 간에 영원한 대립이 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혐오는 거짓이 하는 일들이다. 거짓에 대한 혐오는 진리가 하는 일이다.

(18) 이들의 판결 간에 강렬한 투쟁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분별력과 영광스런 지혜로 거짓의 존재에 대해 마지막을 정하셨다.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 정해진 시간에,

(19) 그는 영원히 거짓을 파괴할 것이다. 그때 진리는 영원히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진리가 거짓이 지배하는 동안 사악한 행위로 판결의 정해진 시간까지 자신을 오염시켜왔다.

(20)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진리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화하고 자신을 위해 사람의 자녀들로부터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는 그의 육체의 기질로부터 거짓 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21) 그는 사악한 행위로부터 그를 성령으로 정화하고 정화의 끝처럼 진리의 영을 그에게 뿌릴 것이다. 그는 그를 거짓이라는 혐오와 불순한 영으로부터의 오염으로부터 정화할 것이다.

(22) 그 결과 정직한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과 하늘의 아들이 가지는 지혜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도에 대해 완전한 자들은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영원한 계약을 선택하고

(23) 아담의 영광이 속임 없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거짓된 일들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리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이 인간들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으며,

(24) 그들은 지혜 안에서 걷거나 혹은 타락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정해진 사람의 몫대로, 그는 의롭게 되어 거짓을 싫어한다. 거짓의 몫 안에 유산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약해져 진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25)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정된 시간과 새것을 만들 때 까지 그들을 선별하였다. 그는 정해진 시간의 마지막에 그들의 일에 대한 보상을 알고 계시며,

(26) 선한 [...]의 지식을 위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할당하고 그의 영혼에 따라 [...]대가 ...,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몫을 결정하셨다.

‘진리의 자녀들’과 ‘기만의 자녀’들 간의 싸움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곧 그가 기만의 영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멸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 때가 되면, 진리의 자녀들은 정화되어 아담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1QS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빛과 어둠의 대결이다. 빛과 어둠의 대결은 진리의 영과 기만의 영의 싸움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빛과 어둠이 이 두 영의 기원과 행동을 반영하며 이 영들의 이름과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권력관계는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 편을 들어주면서 깨진다.

3. 악의 기원

이 구절은 또한 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다. 1QS의 저자는 모든 악의 기원을 한 영, 즉 ‘어둠의 천사’에서 찾는다. 모든 선한 것을 ‘빛의 왕자’에서 기원을 찾고, 모든 악한 것을 ‘어둠의 천사’에게 기원을 찾는 설명은 악의 기원에 관한 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두 영 모두를 창조했고 이 두 명 모두 하나님에 비하여 하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악을 생기게 한 장본이며, 인간들은 태초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몫이 ‘선’인자 ‘악’인지 혼동되기도 한다.

1QS의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동시대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들과는 전혀 다르다. 첫째, 악의 기원은 ‘천사의 반란’으로 시작되었다. 파숫군의 반란에 관한 내용은 외경 [제1에녹서] 6:1-6, 7:1; 10:8-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내용들은 구약성서 [창세기] 6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네필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의 신학적 해석들이다:

[제1에녹서] 6:1-6

- (1) 사람의 자녀들이 많아져 아름답고 정숙한 딸들이 태어났다.
- (2) 하늘의 자녀들인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정욕을 품고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아내를 골라 아이를 낳자”라고 말했다.
- (3) 그들의 대장인 셴야자Semyaja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이 일에 동의하지 않을까 두렵다. 나만 홀로 큰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 (4) 그들 모두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맹세하여 이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하기로 서로 상호간에 약속하자!”
- (5) 이들이 모두 맹세하고 연좌하여 서로 약속하였다.
- (6) 자레드(Jared)시대에 헤르몬산에 내려온 자들은 이백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그 산을 헤르몬(Hermon)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상호 연좌로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제1에녹서] 7:1

(1) 그들과 함께 모든 다른 이(천사)들도 스스로 여자를 취하였다. 각각 한 여자를 취하여 성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마법과 마술, 뿌리를 조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식물과 익숙하도록 하였다.

[제1에녹서] 10:8-9

(8) “모든 땅이 아자젤(Azazel)의 가르침으로 더럽혀졌다. 모든 죄가 그에게서 왔다.”

(9) 주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말했다: “나가서 잠중, 타락한 존재들, 음란의 자녀들과 대항하여 사람들 가운데 음란의 자녀들과 파수군의 자녀들을 멸망시켜라.”

이 당시 악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아담의 불순종’과¹⁶⁾ 인간 의 죄성향¹⁷⁾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의 발생을 계획하고 허락한 자는 하나님이었다.¹⁸⁾

4. 종말론

1QS는 특히 예정된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형태를 만들었다:

1QS 3:15

(15) 앎을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 그들을 위한 모든 틀을 확립하였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인간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창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그가 방문하기 전에 인간들과 함께 할 두 가

16) [아브라함의 묵시] 2,6.

17) Midrash of Berakoth 9.5.

18) Charlesworth, p. 80.

지 영을 계획하였다, 그 두 가지 영은 다음과 같다.

1QS 19-20

(19)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그것이다. 빛의 샘물 안에서 진리의 본질이 나오며 어둠의 우물에서 거짓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20) 빛의 왕자의 손에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다스림이 있다; 빛의 길 안에서 그들은 걸을 것이다. 그러나 어둠의 천사의 손에 거짓의 자녀들 다스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적인 구분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어둠의 천사는 항상 ‘빛의 자녀’들이 길을 잃도록 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QS 21-22

(21) 어둠의 길에서 그들이 걸을 것이다. 어둠의 천사로 인해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그들의 죄, 불법,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림으로 야기된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녀들이 시험을 계속 받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상주시고 악한 자를 벌주시는 신으로 묘사된다. 하나님과 진리의 천사가 빛의 자녀를 도울 것이라고 기록한다.:

1QS 23-25a

(23) 이것은 그의(어둠의 천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간은 그의 적대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24) 그의 몫의 모든 영혼들은 빛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천사는 모든

(25a) 빛의 자녀들을 도울 것이다.

위 내용에서 종말론적 기대가 이원론적이지는 않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선한 신이 개입하여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¹⁹⁾

5. 윤리적 이원론

1QS 4:2-14는 윤리적 이원론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빛의 왕자와 연관된 의로운 태도와 도덕적인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단순히 빛과 어둠의 자녀들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도 구분된다. 다음은 1QS 4:2-8의 내용은 빛의 자녀들의 하나님께 사랑으로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윤리 목록이다:

1QS 4:2-8

(2) 그리고 이것들이(빛의 자녀들)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길들이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앞에 진실한 의로움의 모든 길들을 공개 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게 하고

(3)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확립되어 있는 겸손, 인내의 영혼과 관대한 동정과 지속적인 선행, 현명함, 통찰력, 놀라운 지혜(를 경외하게 한다.)

(4) 이것들은 그의 위대한 헤세드에 의존한다. 지식의 영이 그가 의도한 모든 일에 임하고, 의로운 판단에 열심을 내고, 변치 않는 목표를 향해 거룩한 의도가 있게 하신다.

(5) 그리고 진리의 자녀들에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다. 영광스런 순결로 더러운 우상을 혐오하고,

(6) 지식의 신비에 대한 진실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한 분별 안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 (알맞은) 대가는 치료와

(7) 장수 안에서 위대한 안녕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많은 자녀가 생기며 영생으로 한없이 즐겁고, 영광의 관이

(8) 영원한 빛으로 감싼 눈부신 의상과 함께 빛날 것이다.

빛의 자녀와는 달리 어둠의 자녀는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1QS 4:9-14

(9) 그러나, 거짓의 영혼에 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탐욕과 의로운 일에 태만, 사악함, 거짓, 자만심, 거만함, 잔악한 눈속임과 거짓,

(10) 터무니가 없는 위선, 화냄, 치사한 비열함, 음란의 영혼으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는 몰두, 깨닫지 못한 의례의 더러운 방식들,

(11) 신성모독의 혀, 장님 뱀과 귀머거리 뱀, 목이 뻗뻗하고 마음이 굳음, 그리하여 어둠의 길과 사악한 간교 안에서 걷는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가는

(12) 형벌의 천사에 의한 괴로움, 하나님의 복수의 화로 영원한 파멸, 끊임없는 공포와

(13) 수치, 그리고 어두운 장소의 불 가운데서 소멸하는 망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대 안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파괴될 때 까지 어두운 심연에서 무서운 고통과 모진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14) 그들을 위한 남은 자나 구원이 없다.

이러한 윤리적 이원론의 목록과 대비는 포수기 이후 유대교 문헌에서 많이 등장하며, 그 기원은 기원전 6세기 이후에 기록된 소위 P기자의 우주창조 내용에서도 등장한다:

[창세기] 1:1-5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2. (그 때엔 땅이 매우 혼돈하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강한 바람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구약성서 [창세기]의 내용과 비교하면 윤리적 이원론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찰스워쓰는 1QS 4에 등장하는 윤리적 이원론처럼 자세하고 승화된 윤리적 목록

은 없다고 주장한다.²⁰⁾

프레이는 이 구절의 윤리적 이원론의 기원을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에서 추적하였다. J.G. 감미(Gammie)는 [잠언] 29:27을 인용하면서 지혜 자와 비웃는 자, 의로운 자와 사악한자의 비교를 시도한다²¹⁾

[잠언] 29:27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 윤리적 이원론은 외경 [집회서]에 등장하는 소위 ‘벤시라의 이원론’에 더욱 발전한다. 여기에서 주님 사람들을 구분하여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여 위대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로부터 추방시킨다고 전한다:

[집회서] 33:11-15

11. 주님의 지식의 온전함으로 그는 그들을(인간들) 구분하여 다른 길을 지정하셨다:

i2. 그는 몇몇을 축복하여 드높이고, 몇몇은 거룩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였지만, 나머지는 저주하여 낮추어 그들의 원래 자리로부터 물러가게 하였다.

13.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자신의 좋아하는 대로, 모든 그의 양식대로 사람들은 그들을 만든 자의 손에 있고, 그가 결정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한다.

14. 선은 악의 반대이며, 생명은 죽음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경건한 자의 반대이다.

15. 엘 엘론의 모든 행하심을 보라. 그들은 쌍으로 있고, 서로가 대항하고 있다.

[집회서]에서 악의 근원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임을 암시한다. 하나님님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사람들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20) Charlesworth, p. 79.

21) J.G. Gammie, "Spatial and Ethical Dualism in Jewish Wisdom and Apocalyptic Literatur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3(1974), pp. 356-85.

증언한다. 프레이는 [집회서] 33장이 “창조의 예정론”을 증언하고 있고, 이 내용이 바로 IQS 3:13-4:26의 윤리적 이원론의 근거라고 주장한다.²²⁾

IQS 4:24-25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의 몫, 운명을 부여받았다고 증언한다:

진리 안에서 정해진 사람의 몫대로, 그는 의롭게 되어 거짓을 싫어한다. 거짓의 몫 안에 유산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악해져 진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빛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느냐 혹은 악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유의지에 관한 결정적인 문장은 IQS 4:23-24이다:

IQS 4:23b-24

(23b) 지금까지 진리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이 인간들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으며,

(24) 그들은 지혜안에서 걸거나 혹은 타락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정해진 사람의 몫대로, 그는 의롭게 되어 거짓을 싫어한다. 거짓의 몫 안에 유산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악해져 진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이는 이 구절을 “선택받는 자들이 종말에 거쳐야 할 정화의 단계”라고 해석한다.²³⁾

22) Frey, p. 298.

23) Frey, p. 294.

IV. 마즈다이즘의 영향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 동안 고대 근동의 맹주였던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을 바빌론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 형성을 실제적으로 도운 제국이다. 다리우스대왕 때부터 마즈다이즘을 받아들인 페르시아는 유대교 신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²⁴⁾ 1QS에 등장하는 주요한 주제들인 ‘천사들’(‘빛의 왕자’와 ‘어둠의 천사’)과 이원론은 구약성서 중 후대 기록, 특히 페르시아 정복 이후의 유대문헌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1791년 콘스탄틴 백작(Count Constantine)의 주장 이후, 1900년 초, 소위 종교사학과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²⁵⁾

유대교에 대한 마즈다이즘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 학자들 중 보이스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시대(기원전 6~4세기)에 마즈다이즘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²⁶⁾ 보이스는 핵심적인 후대 초기 그리스도교에도 영향을 줄 유대교 사상의 근간들인 사탄, 악마론, 천사론, 특히 마지막 심판과 부활, 종말론, 그리고 심판, 천국, 지옥, 그리고 정결례와 같은 사상의 기원이 페르시아 마즈다이즘이라고 주장한다.²⁷⁾

많은 학자들은 마즈다이즘의 창건자인 조로아스터는 아후라 마즈다만을 섬기는 유일신론이 아니라, 세상이 태초부터 두개의 영들, 선한 영과 악한 영의 끝없는 대결 구도를 가진 이원론이라 주장한다. 마즈다이즘 문헌들 이원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헌은 [야스나]Yasna 30.1-5이다. 마즈다이즘에 의하면 태초에 두개의 영이 존재했다:

[야스나] 30.3a

이것은 태초에 있었던 두개의 영, 두 종류의 꿈으로 형성된 쌍둥이다.

24) 배철현, 「다리우스 왕(기원전 522-486년)은 조로아스터교 신봉자였나?」, 『중앙아시아연구』 8(2003): pp. 1-28.

25) Wilhelm Bousset, *Die Religion des Judentums in spaethellenistischen Zeitalter* (1902).

26) M. Boyce, *A History of Zoroastrianism II* (Leiden: Brill, 1975): xii.

27) M. Boyce, *Zoroastrian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9): pp. 76-77.

두 가지 생각과 말, 그리고 두 가지 행동, 즉 선한 것과 악한 것.²⁸⁾

인간은 태초부터 존재한 비슷한 두 개의 영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야스나] 30.5.

이 두 영들 사이에서 기만하는 자는 최악의 것들을 선택하지만,
도움을 주는 영은 다이아몬드로 옷을 입고 진리를 선택한다.
그는 마치 진실된 행동으로 아후라를 최선을 다해 만족시키는 것처럼
행동한다, 오 지혜로운 자여!²⁹⁾

M. 보이스에 의하면 “처음부터 아후라 마즈다와 함께 그에 대항하는 창조되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인 적대적인 영, 앙그라 마인유”가 있었다고 설명한다.³⁰⁾ 마즈다이즘의 이원론 안에서 신은 전적으로 선하

28) Helmut Humbach, *The Gathas of Zarathushtra and the Other Old Avestan Texts, Part 1 Introduction-Text and Translation* (Carl Winter Universitaetverlag: Heidelberg 1991): p. 123.

29) Ibid. p. 123.

30) M. Boyce, *History I*, 192; Yarshater, “Iranian Common Beliefs,” in *CHI III.1*, p. 347. 보이스의 의견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놀리(“Ahura Mazda and Angra Mainyu,” in *Eliade, Encyclopedia, 1*, 157-58)에 의하면 아베스타에서는 이원론을 주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¹⁾ 보이스와는 달리 윤리적 이원론은 후대 사산시대(기원후 3~7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이원론은 사산시대 파홀라비어로 쓰인 분다히슨(Bundahishn)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분다히슨] 1.2.1-4: (1) 잔드-아카스는 오르마즈다(아후라 마즈다의 후대 이름)의 첫 우주창조와 악한 영의 적대에 관해, 그리고 처음 창조에서 미래에 존재할 종말까지 창조물들의 본성에 관해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다; (2) 마즈다인들의 종교에 의해 계시된 것으로 오르마즈다가 전지전능, 선에 있어서 최고이며, 웅장함에 탁월하다. 빛이 모이는 곳은 ‘무한한 빛’이신 오르마즈다가 계시 곳이다. 탁월한 오르마즈드의 전지함과 선함을 “계시”라고 부른다; (3) 계시는 양쪽으로 갈라진 것을 설명한다: 한 분은 무한한 시간으로부터 독립적인 분이다. 왜냐하면 오르마즈드와 오르마즈드의 지역, 종교, 그리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흐리만(앙그라 마인유의 후대 이름)은 어둠속에서 미흡한 이해와 파괴를 도모하여 심연에 있다. 그는 미래에 없어질 존

고 악은 악한 영으로 유래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신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오직 선한 편에서 투쟁하는 인간들의 도움을 통해 선한 신은 악한 신을 종말에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아후라 마즈다를 선한 신으로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선행이기도 한다.

악한 영인 앙그라 마인유의 별칭인 ‘앙그라’³¹⁾ 가짜 아베스타 45.2에서 단 한번 등장한다. ‘앙그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해를 주는”이다:

[야스트] 45:2a

나는 태초의 존재에 있었던 두개의 영들을 선포한다.

좀더 도움을 주는 영(선)이 해를 주는 영(악한)을 고칠 것이다.³²⁾

V. 나가는 글

1QS 3:13-4:26에 등장하는 이원론은 후대 그리스도교 사상에도 큰 영향을 준 사상이다. 쿰란공동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정황에 대한 설명을 이원론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은 구약성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1QS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이며 윤리적인 이원론의 근거를 찾기는 미약하다.

1QS에 대한 마즈다이즘의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은 대립하고 있다. 일부 이란학자들은 그 영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 영향을 축소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르러진 이원론은 기원후 3세기 이후에 등장한 사산시대 파홀라비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후대 파홀라비문서에 등장하는 정교한 이원론도 자생적으로 만들

재이다. 그 파괴와 어둠의 장소는 “무한한 어둠”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4) 이들 사이에는 빈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대기’라고 부르며, 이들이 만나는 곳이다.

31) 앙그라 마인유는 후기 아베스타 문헌 [야스트] 3.14, 13.76-78 그리고 [벤디다트] 22에 99,999가지 병을 퍼뜨리는 자로 언급된다.

32) Humbach 164.

어진 것이 아니다. 마즈다이즘의 이원론적 교리가 이미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관하여] *Peri Philosophias*에 등장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³⁾ 1QS에 등장하는 이원론, 더 나아가 신구약중간기에 등장하는 종말론, 천사론, 이원론 등과 같은 주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연구는 유대교를 거쳐 신약성서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1QS의 이원론은 다시 한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사상의 원류를 추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참고문헌

- 배철현, 「Creatio Ex Nihilo?」, 『종교학연구』 21(2002): 29-46.
- _____, 「다리우스 왕(기원전 522-486년)은 조로아스터교 신봉자였나?」, 『중앙아시아연구』 8 (2003): 1-28.
- _____, 「[도마복음서]에 나타난 영지주의: ‘몸’을 통해 본 이원론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54(2005): 158-189.
- Afnan, R. *Zoroaster's Influence on Greek Thought*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65).
- _____, *Zoroaster's Influence on Anaxagoras, the Greek Tragedians and Socrate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69).
- Baumgarten, Joseph M. "The Cave Four Version of the Penal Code," *Journal of Jewish Studies* 43.2 (1992): 268-276.
- Brownlee, W.H. *The Dead Sea Manual of Discipline: Translation and Notes. BASOR Supplementary Series 10-12*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1).
- Black, Matthew. *The Scrolls and Christian Origi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and Sons, 1961).
- Burrows, Millar. *More Light on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The
-
- 33) R. Afnan, *Zoroaster's Influence on Greek Thought*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65); idem. *Zoroaster's Influence on Anaxagoras, the Greek Tragedians and Socrate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69).

- Viking Press, 1958).
- Bousset, Wilhelm. *Die Religion des Judentums in spaethellenistischen Zeitalter* (1902).
- Boyce, Mary. *A History of Zoroastrianism II* (Leiden: Brill, 1975).
- _____, *Zoroastrian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9).
- J. Charlesworth,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alism in 1QS 3:13-4:26 and the 'Dualism' contained in the Gospel of John," in *John and the Dead Sea Scrolls* (COR: New York, 1990).
- Capper, Brian J. "The Interpretation of Acts 5.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9 (1993): 117-131.
- Cross, F.M., D.N. Freedman, J.A. Sanders, *Scrolls from Qumrân Cave I: The Great Isaiah Scroll, The Order of the Community, The Pesher to Habakkuk from Photographs by John C. Trever* (Jerusalem, 1972).
- Dupont-Sommer, A.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 (New York: Meridian Books), 1961.
- Frey, J. "Different Patterns of Dualistic Thought in the Qumran Library: Reflections on their Background and History," in *Legal Texts and Legend Issues, Studies on the Texts of the Desert of Judah 23* (Leiden: E.J. Brill, 1997).
- Knibb, M.A. "The Community Rule," *The Qumran Community* CCWJWCW 2 (Cambridge, New York, 1987): 77-133.
- Leany, A.R.C. *The Rule of the Community and its Meaning: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NTL: London, 1966).
- Licht, J. *The Rule Scroll-A Scroll from the Wilderness of Judea-1QS, 1QSa, 1Qsb: Text, Introduction and Commentary* (Jerusalem, 1965).
- Mealand, David L. "Community of Goods at Qumran," *Theologische Zeitschrift* 31.3 (1975) 129-139.
- Murphy-O'Connor, J. "La genèse littéraire de la Règle de la Communauté," *RB* 76(1969): 528-49.
- Newson, Carol A. "Apocalyptic and the Discourse of the Qumran Communit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49.2 (1990): 135-144.

- Newson, Carol A. "The Social Symbolics of Knowledge at Qumran," *Semeia* 59 (1992): 135-153.
- Rost, Leonhard. *Judaism Outside the Hebrew Canon* (Nashville: Abingdon, 1971).
- Pouilly, J. "La Règle de la Communauté de Qumrân: Son évolution littéraire," *CRB* 17 (1976).
- Vermes, Geza. "Preliminary Remarks on Unpublished Fragments of the Community Rule from Qumran Cave 4," *Journal of Jewish Studies* 42.2 (1991) 250-255.
- Wernber-Møller, P. *The Manual of Discipline. STDJ 1* (Leiden, Brill, 1957).

참고자료: 1QS 3.13-4.26 한글번역

1QS 3

(13) 선생의 역할은 모든 빛의 자녀들을 모든 인간들의(직역, '사람들 자녀들의') 본성에 관해 이해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14) 즉, 그들의 세대안의 활동에 맞게 자신들의 표징을 지닌 모든 종류의 영혼들과 그들의 평화의 시대에 함께 오는 고난의 도래에 관한 것이다.

(15) 앎을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 그들을 위한 모든 틀을 확립하였다.

(16)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존재하게 될 때, 그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의 손 안에

(17) 모든 사물에 대한 판결이 있다. 그는 그들의 활동 가운데 그들을 지탱할 것이다. 그는 인간을 세상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

(18) 그는 인간을 위해 그가 방문할 정해진 시간 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할 두 가지 영을 계획하였다:

(19) 진리의 영광 거짓의 영이 그것이다. 빛의 샘물 안에서 진리의 본질이 나오며 어둠의 우물에서 기만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20) 빛의 왕자의 손에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다스림이 있다; 빛의 길 안에서 그들은 걸을 것이다. 그러나, 어둠의 천사의 손에 기만의 자녀들 다스림이 있다.

(21) 어둠의 길에서 그들이 걸을 것이다. 어둠의 천사로 인해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그들의 죄, 불법,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림으로 야기된 것이다.

(23) 이것은 그의(어둠의 천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간은 그의 적대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24) 그의 몫의 모든 영혼들은 빛의 자녀들을 넘어서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천사는 모든

(25) 빛의 자녀들을 도울 것이다. 그는 빛의 영혼과 어둠의 영혼을 찬양하였고 그들 위에 모든 피조물의 기초를 만드셨다.

(26) [...]bn 모든 행동, 그들의 길 위에 모든 [...]db가 있다. 하나님 이 그 사람을 영원한 정해진 시간을 위해 사랑한다.

1QS 4

(1)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영원히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가 혐오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의 모임과 그의 모든 길을 영원히 싫어한다.

(2) 그리고 이것들이(빛의 자녀들)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길들이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앞에 진실한 의로움의 모든 길들을 공개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게 하고

(3)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확립되어 있는 겸손, 인내의 영혼과 관대한 동정과 지속 적인 선행, 현명함, 통찰력, 놀라운 지혜(를 경외하게 한다.)

(4) 이것들은 그의 위대한 헤세드에 의존한다. 지식의 영이 그가 의도한 모든 일에 임하고, 의로운 판단에 열심을 내고, 변치 않는 목

표를 향해 거룩한 의도가 있게 하신다.

(5) 그리고 진리의 자녀들에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다. 영광스런 순결로 더러운 우상을 혐오하고,

(6) 지식의 신비에 대한 진실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한 분별 안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 (알맞은) 대가는 치료와

(7) 장수 안에서 위대한 안녕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많은 자녀가 생기며 영생으로 한없이 즐겁고, 영광의 관이

(8) 영원한 빛으로 감싼 눈부신 의상과 함께 빛날 것이다.

(9) 그러나, 거짓의 영혼에 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탐욕과 의로운 일에 태만, 사악함, 거짓, 자만심, 거만함, 잔악한 눈속임과 거짓,

(10) 터무니가 없는 위선, 화냄, 치사한 비열함, 음란의 영혼으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는 몰두, 깨닫지 못한 의례의 더러운 방식들,

(11) 신성모독의 혀, 장님 됨과 귀먹어리 됨, 목이 뻗뻗하고 마음이 굳음, 그리하여 어둠의 길과 사악한 간교 안에서 걷는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가는

(12) 형벌의 천사에 의한 괴로움, 하나님의 복수의 화로 영원한 파멸, 끊임없는 공포와

(13) 수치, 그리고 어두운 장소의 불 가운데서 소멸하는 망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대 안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파괴될 때 까지 어두운 심연에서 무서운 고통과 모진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14) 그들을 위한 남은 자나 구원이 없다.

(15) 이들 안의 (두 영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며, 이들의 두 구분 안에 사람들의 세대의 모든 무리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방식 안에서 사람들은 걷고, 모든 그들의 일들은

(16) 사람의 몫에 따라 다소를 불문하고 모든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들의 구분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을 선별했기 때문이다:

(17) 그들의 구분 간에 영원한 대립이 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탈선은 거짓이 하는 일들이다. 거짓에 대한 탈선은 진리가 하는 일들이다.

(18) 이들의 판결 간에 강렬한 투쟁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결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분별력과 영광스런 지혜로 거짓의 존재에 대해 마지막을 정하셨다.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 정해진 시간에,

(19) 그는 영원히 거짓을 파괴할 것이다. 그때 진리는 영원히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진리가 거짓이 지배하는 동안 사악한 행위로 판결의 정해진 시간까지 자신을 오염시켜왔다.

(20)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진리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화하고 자신을 위해 사람의 자녀들로부터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는 그의 육체의 기질로부터 거짓 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21) 그는 사악한 행위로부터 그를 성령으로 정화하고 정화의 물처럼 진리의 영을 그에게 뿌릴 것이다. 그는 그를 거짓이라는 혐오와 불순한 영으로부터의 오염으로부터 정화할 것이다.

(22) 그 결과 정직한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과 하늘의 아들이 가지는 지혜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도에 대해 완전한 자들은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영원한 계약을 선택하고

(23) 아담의 영광이 속임 없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거짓된 일들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리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이 인간들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으며,

(24) 그들은 지혜안에서 걸거나 혹은 타락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정해진 사람의 몫대로, 그는 의롭게 되어 거짓을 싫어한다. 거짓의 몫 안에 유산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악해져 진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25)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정된 시간과 새것을 만들 때 까지 그들을 선별하였다. 그는 정해진 시간의 마지막에 그들의 일에 대한 보상을 알고 계시며,

(26) 선한 [...]의 지식을 위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할당하고 그의 영혼에 따라 [...]대가 ...,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몫을 결정하셨다.

Abstract

Dualism in 1QS

Bae, Chul-hyun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e origin of dualism in Judeo-Christian tradition. Close analysis of 1QS, so-called “Discipline of Community,” which was discovered in 1948 in Qumran, reveals that Christian dualism found in New Testament has its precedents in many Qumran documents, especially in 1QS. Previous scholarship traced its origin mainly from inner development of Judaism or from Hellenistic influence. The writer argues for the Zoroastrian origin of dualism on 1QS. Jews during the Achaemenid period between 6th to 4th century BCE naturally contacted Zoroastrian religion. Such contact gave a heavy impact on Judaism in many areas: dualism, eschatology, angelology etc. This study demands a new perspective on Christian origin of dualism.

Key word: Qumran documents, Dualism, Zoroastrianism, 1QS